



제3회 베리타스미술상 시상

본회(회장 권영걸/69응미)는 지난 12월 7일 서울대학교미술관 렉처홀에서 진행된 2023년도 전기졸업전 우수자 시상식에서 제3회 베리타스미술상을 시상했다. 올해 수상자는 유지원(19동양), 권민주(19서양), 고수정(19조소), 윤은서(17금속공예), 배인규(17도자공예), 박소영(18시각디자인), 나희연(18산업디자인), 윤동신(18영상매체) 학생 등 전공별 1명씩 총 8명으로, 권영걸 회장을 대신하여 이민주(78회화) 상임부회장이 시상했다. 베리타스미술상은 유망한 젊은 작가들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본회에서 2021년 제정한 상으로, 본회는 2020년까지 졸업전시 동창회장상 수상자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왔으나, 이들에게 전시 기회를 제공하여 졸업 후 작품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이를 통해 다양한 동문들과 교류하게끔 유도하는 것이 보다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2021년부터 동창회장상의 명칭을 '베리타스미술상'으로 변경하고 부상으로 '베리타스미술상전'을 개최해 수상자들에게 미술계 등단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21년 수상자 8인이 참여한 제1회 베리타스미술상전을 2022년 6월 포스코건설 더샵갤러리에서 개최했으며, 제2회전은 2023년 4월 16일부터 25일까지 예술의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많은 동문이 참여하는 본회 최대 전시 '2023 빌라다르'와 동시에 개최되었다. 상을 받은 배인규 학생은 "베리타스미술상을 받게 돼서 기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작품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수상 소감과 앞으로의 다짐을 전했다. 이번 수상자들은 내년 4월 본회 기획전 'SNU아트 페어', '숨은예술가들'과 함께 한전아트센터에서 개최되는 제3회 베리타스미술상전에 참여하게 된다.

본회소식



서울대미술인1946-2023 발간

본회는 지난 2019년부터 4년 동안 진행된 자료조사를 토대로 '서울대미술인 1946-2023'을 발간했다. 도록은 소장가치를 높이고자 한정판으로 제작되어 구매 신청자에게 배송을 시작했다. 도록에는 시각예술은 물론, 모든 분야의 46 학번 원로동문부터 2023년도 신입동문까지 3000여명의 실적이 수록됐다. 할인 구매신청은 평생회비 또는 2424년도 연회비 납부회원에 한해 가능하다.
구매신청 : 문자(010-5235-1946)로 신청(부수, 성명, 학번, 학과 명시)
회원할인 : 8만원(정가 15만원) 문의 : 02-5550-1946
납부계좌 : 농협 301-0252-4434-51 권영걸(서울대미대동창회)

재학생 야식지원사업 성황리에 종료



본회는 지난 11월 21일부터 12월 7일까지 야간작업을 하는 재학생들을 위해 진행한 야식지원사업 '후배님들을 응원합니다'를 성황리에 마쳤다. 본회는 2019년부터 모교 학생회와 협력하여 야식사업을 실시해 왔다. 이번에는 3주의 기간 동안 주 2회 본회 서울대 오피스(모교 50동 311호)에서 모교 재학생들에게 컵라면과 구운계란, 에너지바를 제공했다. 특히 이번에는 예술계복합연구동(74동) 홍보를 강화해 대학원생의 참여도 늘어 매회 150여명의 재학생들이 방문해 야식지원을 받았다.

본회는 서울대동창회와 함께 지난 12월 11일부터 17일까지 마포 SNU장학빌딩 베리타스홀에서 '마이컬렉션'을 개최했다. 이번 전시는 서울대 동문 및 단체가 소장한 작품들을 특별할인 가격으로 소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전시에는 1946년 이후 제작된 회화, 조각, 공예작품 120여점이 출품됐다.

회장동정



국가상징공간 콘퍼런스 참석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권영걸 회장이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와 함께 지난 12월 12일 오후 2시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국가상징공간 조성방향 논의'를 위한 콘퍼런스'에 참석하였다. 이번 국가상징공간에 담을 핵심가치를 발굴하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마이컬렉션 개최

본회는 서울대동창회와 함께 지난 12월 11일부터 17일까지 마포 SNU장학빌딩 베리타스홀에서 '마이컬렉션'을 개최했다. 이번 전시는 서울대 동문 및 단체가 소장한 작품들을 특별할인 가격으로 소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전시에는 1946년 이후 제작된 회화, 조각, 공예작품 120여점이 출품됐다.

S-ARTMALL

SOUVENIR

서울대미대동창회 기념굿즈!

깔끔한 미대동창회로고가 들어간 기념품을 에스아트몰에서 만나보세요



sartmall.com

서울대 동문 특별할인 제공
총동창회물 'Mall SNUA' 입점(브랜드관 S-ARTMALL)
(사)에스아트플랫폼 회원신청 및 작품등록에 대한 문의
02-877-8065 / sartmall.contact@gmail.com



캔버스 앞치마(네이비/다크그레이) 80x61cm



동문할인 ₩30,000 ₩27,000



다용도 도자필통
지름6.7x높이10cm
동문할인 ₩25,000 ₩22,500



여행용 워시백 15.5x22x7cm
동문할인 ₩17,000 ₩15,300

모교소식



23학년도 전기졸업전 개최

모교 2023학년도 '전기졸업전 및 석사박사 학위청구전'의 개막식이 지난 12월 7일 오후 2시 서울대학교미술관 렉처홀에서 열렸다. 이종걸 교무부학장의 사회로 열린 개막식은 내외빈 소개와 모교 정의철 학장의 개회사, 김성규 서울대 교무부총장의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정의철 학장은 개회사에서 "각자의 생각과 창작 능력을 차근차근 쌓아가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고통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자리이니만큼 전시장을 둘러보시면서 작품 하나하나에 왜 이렇게 창작했을까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우리 시대를 공감하고 이해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최근 '인공지능기술은 창작 영역을 넘보는 것이 아닌가'에 관해 다양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진이 발달해도 회화가 없어지지 않았듯이 인간의 신체를 통해 체화되고 숙성된 창작의 산물은 여전히 존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인간의 열정은 계속 이어지리라 생각하며 이런 열정 중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예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라고 했다. 국어국문 전공인 김성규 부총장은 이번 전시회가 내재된 본인의 창의성을 개발하는 시간들의 결실이라 표현하며 한국의 테두리를 넘어 전 세계에 영감을 주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또한 미대 졸업작품전이 내용상으로도 서울대 전체 학생들의 축제가 되어야 모두에게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개막식과 함께 학장상, 하동철 창작지원상, 신영미술상, 두오모미술상, 호암교수회 창작지원상, 베리타스미술상의 시상식이 있었다. 미대학장상은 서



지원(18동양), 권영재(18서양), 남지강(18조소), 임지우(19공예), 금민정(19디자인), 박다희(석21공예) 등 6명이 받았다(◀사진). 하동철창작지원상은 강민서(20서양)가 받았고 두오모미술상은 김민지(19공예), 전지현(19공예)이 받았다. 신영문화재단 김일권 사장은 신영미술상을 이소희(19동양), 김동해(20서양), 박민우(18조소), 윤은서(17공예), 정지운(17디자인)에게, 호암교수회관 생활협동조합 한병우 집행이사가 호암교수회 창작지원상을



김가은(19디자인)에게 수여하였다. 유준희 학생처장 등 각과 학장 및 교수들, 학생 및 학부형들이 참가한 이번 행사는 기념촬영과 이종걸 교무부학장의 폐회선언으로 마무리되었고, 식후에는 전시장에서 졸업생들이 작품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승은(16동양/◀사진) 학생은 "인생을 집으로 가는 길에 비유해서 풍경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작업에 대해서 더 진지하게 고민하고 연구하고 시도할 수 있었고 자신의 작품세계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이론적으로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졸업 후 본인만의 시각언어를 찾아서 재미있게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작품을 연구해 나갈 것입니다"고 말했고, 김서현(18동양/작가명 이지) 학생은 "도시의 아픈 나무를 그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하면서 많이 성장할 수 있었고 아쉬운 부분도 많았지만, 졸업전시란



결과물을 하나로 내보이면서 학부생활을 매듭지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김단비(석21디자인) 학생은 "현 포스트 디지털 시대에서 '데이터'는 감시자본주의의 매개체로 작용하여 전 세계적으로 사회, 경제, 문화를 주도합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이러한 사회경제적 틀 안에서 발생하는 인권 문제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인권'이란 개념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정체성, 의식, 그리고 자율성과 연결되는데, 이러한 인권의 핵심적 요소들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저는 실험적이고 개방적이며 과정 중심적인 시각디자인 접근을 선택하여 복잡한 주제에 대한 추상적인 질문들을 적절한 매체와 표현 방법으로 탐구했습니다"라고 작품설명을 했다. 한편, 석박사 학위청구전은 서울대학교 미술관에서, 학사 졸업전 중 동양화과, 서양화과는 50동, 51동, 74동에서 조소과는 51동, 52동, 74동, 연합전공 영상매체예술은 74동에서 전시되었다.



▲사진=23학년도 전기졸업전 및 석사·박사학위청구전 전경

모교소식

11월 '졸업하면 뭐할래?'



모교 진로특강 시리즈 '졸업하면 뭐할래?'가 지난 11월 29일 열렸다. 이번 특강의 강연자는 손동훈(프리랜서 디자이너)과 백필균(독립큐레이터, 소현문공동설립자)였다. 손동훈 디자이너는 '사람과 사물을 대하는 태도를 디자인하기'라는 주제 아래서 프로젝트 사례들을 통해 산업 디자이너로 출발하여 작품 활동에 이르기까지 고민과 방향에 대해 공유하고 향후 진로에 대해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백필균 큐레이터는 '예비예술인과 전시 큐레이팅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 세미나에서 큐레이터가 '전직하는 조건: 독립 큐레이팅 이해', 전시 기획과 큐레이팅 사례 소개, 큐레이터 진로 준비 과정의 세가지 소주제를 다뤘다. 모교와 조형연구소가 주최하고 주관하는 진로특강 '졸업하면 뭐할래'는 '진신로운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강은 ZOOM을 통한 비대면 강의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되며 서울대 구성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심철웅교수 퇴임기념전 'Nomadic Dream'



모교 서양화과 심철웅(78회화) 교수의 정년퇴임 기념전이 지난 12월 22일부터 오는 1월 7일까지 서울대학교미술관에서 개최된다. 지난 12월 22일 오후 5시 서울대학교미술관 렉처홀에서 전시 오픈식이 진행되었다. 서양화과의 신정훈 교수의 전시 소개와 심교수에 대한 소개말에 이어 정의철 모교 학장의 개회사 및 축사가 있었다. 이어서 한국 영상학회에서 공로패 수여와, 제자 두 명의 스승을 향한 편지 낭독이 있었다. 심교수는 "퇴임전을 준비하며 지난 30년간의 작업을 되돌아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의 1장이 끝났고 이제 2장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동문 선배들의 도움으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라고 오픈식에서 전했다. 한편, 심교수는 1990년대 중반부터 대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디오/미디어 아트 1세대 작가이다. 1996년 '서울 미디어 연구회'를 설립 후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1998년 한국영상학회가 출범하는 데에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2000년에서 2004년까지는 한국영상학회 회장으로서의 시절을 보냈고, 1995년부터 29년간 모교에서 작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에 힘써왔다. 그는 여러 기획전과 학회 활동을 이끌면서 우리나라 미디어 아트의 초창기 토대 구축 및 발전에 기여하였다. 20여 회의 개인전과 우수한 국내외 단체전에서 작품을 발표하였으며,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여수시립미술관 등 여러 기관에 그의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공예과, 오뚜기와 협업 면기개발



모교 공예과 도예전공 학생들이 오뚜기의 식문화 향상 프로젝트 '오뚜기 및 2023'과 협업·개발한 면기 및 식도구 총 114종 1,223 점이 지난 10월 25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종로구 북촌 한옥 마을 일대에서 열린 라이프스타일 축제 '행복작당 2023'에서 판매됐다. '오뚜기 및 2023'은 오뚜기가 Craft & Life 전시공간 '월(WOL) 삼청'에서 운영하는 식문화 도구 개발 프로젝트로, '라면 그릇'을 주제로 개발한 다양한 작품을 전시·판매하고 있다. '오뚜기 및 2023'에 모교 공예과가 참여한 것은 지난 4월 모교 공예과와 오뚜기가 맺은 MOU에 따른 성과

이다. 모교 황갑순 교수와 연구원 3명을 포함한 학생 및 작가 23명의 프로젝트팀이 구성되었으며 6개월간 그릇 원료 연구와 디자인 작업 등의 과정을 거쳐 식도구를 개발했다.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모교 공예과와 오뚜기는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식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오뚜기 측은 밝혔다.

협동과정 미술경영, 심포지엄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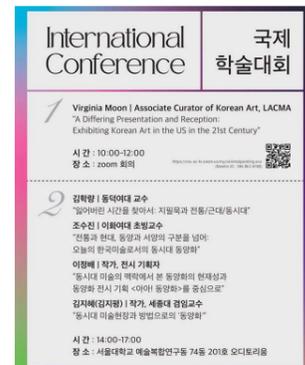
모교 협동과정 미술경영의 주최로 '냉전기 외원기관의 후원 양상과 사료 발굴'에 관한 학술 심포지엄이 지난 12월 30일 모교 74동 오디토리움에서 개최되었다. 발표자로 정무정(덕성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조현정(한국과학기술원 디지털인문사회과학부), 오윤정(서울대학교 아시아언어문명학부), 김제희(서울대학교 협동과정 미술경영)가 참여해 한미재단, 록펠러 재단 등의 외원기관과 전후 일본 판화의 냉전에 관해 발표했다. 이어 진행된 질의 및 토론에는 신정훈 모교 교수(서양화 및 협동과정 미술경영)가 모더레이터로 참여했다. 심포지엄은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오후 4시부터 6시 50분까지 진행되었다.

대학주간행사 '씨클씨클 미디어페스티벌' 참가



모교 김정환 교수 및 서양화과 학생 15명이 문화비축기지에서 개최된 대학주간행사 '씨클씨클 미디어페스티벌'에 참여했다. 문화비축기지의 T5영상미디어관을 '장소 특정적 전시콘텐츠-창작산실-미디어전문기획공간'으로 특화하기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의 일환인 본 행사에는 모교와 서울여자대학교, 파주타이포그래피학교가 참여했고, 각 학교별로 연계된 미디어 수업이 진행됐다. 수업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작품은 지난 12월 7일부터 10일까지 T5영상미디어관에서 시연되었다. 그중 1일(12월 9일)에는 파일럿 프로그램에 참여한 3개 대학 교수들과 과정을 공유하기 위한 라운드테이블도 진행되었다.

동양화과, 국제학술대회 개최



모교 동양화과가 지난 12월 15일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본 학술대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2부에 걸쳐 열렸다. 1부에서는 로스엔젤레스 뮤지엄(LACMA)의 한국미술 큐레이터 Virginia Moon이 'A Differing Presentation and Reception: Exhibiting Korean Art in the US in the 21st Century'를 주제로 발표했다. 발표는 ZOOM 회의에서 영어로 진행되었고 순차 통역이 지원되었다. 2부는 모교 74동 오디토리움에서 진행되었고 김학량(동덕여대 교수), 조수진(이화여대 초빙교수), 이정배(작가, 전시 기획자), 김지평(작가, 세종대 겸임교수)이 발표자로 참여했다.

동양화과, 특강 'Beyond the Studio' 개최



모교 동양화과는 지난 12월 20일 '서울대학교 10-1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주영한국문화원 큐레이터 Lee Suh를 초청해 1시간 반 가량의 특강을 개최했다. ZOOM에서 진행된 이번 특강에서 Lee Suh 큐레이터는 주영한국문화원의 큐레이터로서 전시 초기 구상, 예산운용, 작가 홍보, 공간 디자인, 오픈, 운영, 종료 후 랩업까지의 사이클을 두 개 전시 예를 통해 소개했다. 또한 코로나 이후 영국에서 주목하는 한국 관련 전시도 소개했다.

서울대소식



유홍림 총장 '동경포럼2023' 참석

유홍림 서울대 총장이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일본 동경대와 최종현학술원 공동주관으로 동경대에서 열린 '동경포럼 2023'에 참석했다. 올해 5회를 맞은 이번 포럼의 주제는 'Cultivating Humanity amid Social Divisions and Digital Transformation'로, 한일 양국의 주요 산학연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포럼 마지막 날인 1일에는 'The Role of Universities in the Era of Digital Transformation'을 주제로 열린 '대학총장 세션'에 유홍림 총장이 패널로 참가해 인공지능 및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따른 고등교육의 미래 방향을 제시했다. 유총장은 앞선 11월 30일에 후지이 테루오 동경대 총장을 접견해 향후 대학 간 긴밀한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제65회 대학문학상 수상작 발표



지난 12월 4일 대학신문이 제65회 대학문학상 수상작을 발표했다. 시, 단편소설, 문학·영화 평론, 희곡·시나리오 4개 부문으로 치러진 이번 공모전에서 8개의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그 중 대상은 강연하(불어불문 석사<사진>의 단편소설 '예리'가 차지했다. '예리'는 여성의 성을 둘러싼 온갖 모순들 속에서 정신적, 신체적 성장이 아직은 불균형한 중학생 '예리'의 성적 탐구가 "싸늘한 부끄러움"으로 귀결되는 과정을 치밀하면서도 감각적으로 전달한 작품이다. 돋보이는 언어와 주제 장악력으로 심사위원 사이 이견 없이 대상으로 추천되었다고 대학신문은 밝혔다. 이외에 단편소설 우수작으로는 박규리(소비자아동)의 '박피의 통증', 단편소설 가작으로는 박준서(정치외교)의 '자정2'와 김연진(분자의학 석사)의 '라크리모사', 시 가작으로는 이소명(여성학 석사)의 '착시와 패턴', 문학·영화 평론 우수작으로는 고민규(경영)의 '집단적 상상으로의 여정- 아피차퐁 위라세타쿤의 <메모리아>', 문학·영화 평론 가작으로는 안세진(국문 석사) "광주 이후"를 걸어가기- 박솔미 소설에 등장하는 광주 표상, 희곡·시나리오 우수작으로는 백제윤(경영) '멀리서'가 선정되었다. 수상작 8개의 전문과 심사평, 수상소감 등은 대학신문 홈페이지 또는 2084호(2023년 12월 4일) 지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학문학상은 대학신문에서 서울대 학사과정 및 대학원과정 재적생 중 해당 장르 미등단자를 대상으로 여는 공모전이다.

제3회 스누인의 연구일지 개최



지난 11월 14일 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관장 장덕진)에서 제3회 선배 연구자 특강 '스누인의 연구일지'가 개최됐다. '스누인의 연구일지'는 "전문 연구역량과 경험을 지닌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연구자를 강연자로 초청해 학문 주제 분야별 논문작성법과 학습법 등을 공유하는 행사"라고 중앙도서관은 설명한다. 이번 특강은 유슬기 박사(환경대

학원)가 '인문·사회과학의 융복합 분야 연구자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진행했다. 학생들은 강연을 통해 융복합 연구의 지향점, 연구 방법, 전망과 향후 과제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유박사는 서울시립대 국사학과를 학사 졸업했고,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도시계획학 석박사를 수료했다. 올해 제21회 국토 연구 우수논문상을 받 도시계획학의 전문가로,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선임연구원이기도 하다.



파워플랜트, 'Living the Bodies'

지난 12월 한 달간 서울대학교 파워플랜트(68동)에서는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주체가 된 여러 전시, 공연, 워크숍이 열렸다. 지난 12월 1일부터 3일까지는 '다양한 몸, 살아가는 몸'을 주제로 전시, 공연, 워크숍을 구성한 프로그램 'Living the Bodies'가 개최됐다. 전시에는 유화수+이지양, 김은설, 최장원, 김예슬 등의 가구, 영상, 사진 작품이, 공연행사에는 김수화, 한연지, 키라라 등의 라이브셋 쇼케이스가 펼쳐졌고 워크숍에서는 한연지, 이반지하, 김지양 등이 각기 다른 몸에 관한 이야기와 경험 등을 분석하고 성찰했다. 이 밖에 다수의 참가자들과 함께 트랜스젠더 인권 단체 '유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LnL 시범사업, 2024학년도 연장·확대 시행

서울대형 RC(Residential College, 기숙형 교육)인 LnL(Living & Learning) 시범사업이 2024학년도에도 연장 운영된다고 LnL 시범 사업운영단(단장 최정권)이 밝혔다. Residential College는 주간의 학습활동과 방과 후 공동체 활동을 융합시켜, 거주 공간인 Residence를 생활체험 교육의 공간으로 전환하는 통합형 교육체제를 말한다. 지난해 운영된 LnL 시범 사업은 2023학년도 신입생 중 참여를 신청한 248명을 대상으로 관악학생생활관(관악사) 906동에서 실시됐다. 시범 사업이 연장되면서 그 규모도 확대되어 내년도에는 919D동에서도 LnL



시범 사업이 운영될 예정이다. 당초 1년으로 계획된 LnL 시범 사업이 연장된 것은 "1년 안에 모든 활동을 종료하기보다는 서울대에 적합한 RC로 정착할 때까지 운영한다는 구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최정권 단장은 설명했다. 2024학년도 LnL의 활동은 교과·비교과로 나뉘는 기존의 틀을 그대로 가져간다. 교과 활동인 '관악모둠강좌'와 '학생자율세미나'를 마찬가지로 진행하되 "학생들의 참여와 활동을 증진할 수 있도록 올해(2023학년도) 참여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범 사업이 연장되면서 그 규모도 확대되어 내년도에는 919D동에서도 LnL 시범 사업이 운영될 예정이다. 당초 1년으로 계획된 LnL 시범 사업이 연장된 것은 "1년 안에 모든 활동을 종료하기보다는 서울대에 적합한 RC로 정착할 때까지 운영한다는 구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최정권 단장은 설명했다. 2024학년도 LnL의 활동은 교과·비교과로 나뉘는 기존의 틀을 그대로 가져간다. 교과 활동인 '관악모둠강좌'와 '학생자율세미나'를 마찬가지로 진행하되 "학생들의 참여와 활동을 증진할 수 있도록 올해(2023학년도) 참여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식축구부 전국대학선수권대회 우승



서울대학교 미식축구부 '그린테러스'(주장 정진욱)가 지난 12월 2일 경북 군위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63회 전국대학 미식축구 선수권대회 결승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서울대 미식축구부가 대학 선수권대회에서 50년 만에 얻은 쾌거다. '타이거볼'로 불리는 전국 대학 미식축구 선수권대회는 춘·추계 지역리그에서 올라온 8개 대학팀이 토너먼트 식으로 승자를 가린다. 서울대는 성균관대와 결승전을 끝으로 추계리그 전승 우승을 기록하며 기세 좋게 전국대회에 진출했다. 1977년 창단한 서울대 미식축구부는 근래 선수 인원이 늘어나고, 체계적인 훈련이 자리잡히며 전력이 강화됐다. 대회 MVP를 받은 정진욱(18의류) 주장은 "전국 대학팀 중 시즌 마지막 경기를 웃으며 끝낼 수 있는 단 한 팀이 우리 그린테러스라 자랑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대학교 미식축구부 '그린테러스'(주장 정진욱)가 지난 12월 2일 경북 군위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63회 전국대학 미식축구 선수권대회 결승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서울대 미식축구부가 대학 선수권대회에서 50년 만에 얻은 쾌거다. '타이거볼'로 불리는 전국 대학 미식축구 선수권대회는 춘·추계 지역리그에서 올라온 8개 대학팀이 토너먼트 식으로 승자를 가린다. 서울대는 성균관대와 결승전을 끝으로 추계리그 전승 우승을 기록하며 기세 좋게 전국대회에 진출했다. 1977년 창단한 서울대 미식축구부는 근래 선수 인원이 늘어나고, 체계적인 훈련이 자리잡히며 전력이 강화됐다. 대회 MVP를 받은 정진욱(18의류) 주장은 "전국 대학팀 중 시즌 마지막 경기를 웃으며 끝낼 수 있는 단 한 팀이 우리 그린테러스라 자랑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대총동창회 소식

제178차 상임위원회 개최



서울대학교총동창회(회장 김종섭)는 지난 11월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대화홀에서 제178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종섭 총동창회장, 김인규 수석부회장, 이경형 상임부회장 등을 비롯해 상임위원 44명이 참석했다. 재적인원 164명 중 55명

은 위임장을 보내왔다. 상임위원회는 본회 회장단과 단과대학·대학원 동창회장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송우엽 사무총장의 사업 실적 보고 후 2024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안이 상정돼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총동창회는 내년에도 '보람 있고 유익하고 즐거운 동창회'라는 모토 아래 서울대 동문의 사회적 책무 실천에 역점을 둘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지속 가능한 동문 참여형 사회공헌 활동 추진, 동문 재능기부 인력풀 구성, 융복합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유익한 동창회'를 구현하기 위해 회원 우대 혜택을 확대하고 오페라 및 음악회 영상 감상 등의 문화 강좌를 개설하고 연례행사의 질을 더 높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25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한편 2023년 결산안은 내년 3월 15일 제179차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되며, 2024년 예산안 및 2023년 결산안은 내년 3월 정기총회에서 최종 승인된다.

총동창회장추대위원회 위원장 선출



총동창회 제30대 회장 및 감사 선출을 위한 회장추대위원회 제1차 회의가 지난 11월 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가운데 임현진(67사회)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가 추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날 회의에는 27명의 전체 위원 중 12명이 참석했으며, 11명이 위임했다. 회장추대위는 총동창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 12명, 단과대학·대학원 동창회장단이 선출하는 동창회장 12명, 모교 총장 추천 3명 총

27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총장이 추천한 세 명 가운데 선출한다. 회장 및 감사 모집 공고는 제1차 추대위원회 회의 후 지난 12월 1일 공고해 12월 10일 마감했다. 앞으로 일정은 내년 1월 8~12일 2차 회장추대위원회를 열고 마감 결과를 토대로 회장 및 감사 후보자를 선정하고, 3월 15일 총동창회 상임위원회에서 회장 및 감사 후보자를 승인받는다. 최종 인준은 3월 29일 정기총회에서 이뤄진다.

수요특강, '일자리 동향과 자녀교육 전략'



지난 11월 22일 마포구 SNU 장학빌딩에서 수요특강이 개최됐다. 이날 '일자리 동향과 자녀 교육 전략'을 주제로 이수형(94 국제경제)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강단에 섰다. 경제학자인 이교수는 데이터 분석을 무기로 많은 사회 경제적 문제를 바라본다. 그중 최근 이교수가 주목하는 것이 일자리, 그리고 그와 이어지는 교육이다. 이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경제학에서 바라볼 때 AI는 인간의 노동을 자동화하는

기술이다. "학습할 수 있는, 경험치가 많이 쌓인 일은 기계가 잘할 수 있어요. 거꾸로 말하면 경험치가 잘 쌓이지 않는, 과거 정보가 쓸모없는 경우가 인간이 기계보다 유리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이 '인적자본'을 높이는 교육이다. 이교수는 인적자본을 '한 사람이 1시간의 노동을 투입했을 때 업무에서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는지 개념화시킨 용어'라고 설명한다. 공부머리라고 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뿐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능력, 자발성,

인내심, 사회성, 리더십 등의 '비인지적 능력'도 인적자본에 속한다. 한편 수리력, 통계력 또한 이교수가 강조하는 능력이다. 근세에 글을 읽을 줄 아는 리터러시(literacy)가 자유민의 기본조건이었던 것처럼 지금 시대에는 통계적인 리터러시가 생존의 필수 능력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이교수는 아이들의 건강을 잘 살필 것 그리고 아이들의 활동무대에 대한 시각을 넓힐 것 등을 자녀 교육 전략으로 제안했다.

제1회 스타트업포럼 개최



지난 11월 2일 관악인경제인회(회장 이부섭)가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제1회 스타트업 포럼을 개최했다. 이부섭 회장, 이희범 명예회장, 오세정 서울대 전총장 등 8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포럼에서 이진열(08종교) 한국시니어연구소 대표, 배현기(84경제) 웰스가이드 대표, 이주민(04기계공학) 매드업 대표, 이승아(19법전원) 레어리 대표 등 4명이 자기 회사를 소개했다. 한국시니어연구소는 2019년 설립되었으며 방문요양센터를 위한 B2B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하이케어'를 제공하고 있다. 웰스가이드는 2019년 설립되었고 오픈AI의 챗GPT를 개인 금융에 접목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다. 금융·통신·의료 등 개인의 여러 데이터가 본인 동의하에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집적되는 '마 이데이터'에 분석 엔진과 커뮤니케이션 툴을 접목했다. 매드업은 2015년 설립된 애드테크(ad-tech) 스타트업이다. 웹·모바일 마케팅 대행 및 자동화 솔루션 사업을 한다. 이승아 레어리 대표는 유튜브로 시작해 70만 구독자를 모으고 무료 스타일 컨설팅이 회당 20만원을 받기까지의 여정을 그렸다. 관악경제인회는 본 포럼이 '선배 기업인이 후배 기업인에게 아낌없이 조언하고 투자함으로써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으며 분기에 한 번씩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악경제인회 조찬포럼, '2024년도 경제 전망'



관악경제인회가 지난 12월 7일 더플라자호텔 4층에서 조찬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에서 추광호(86계산통계)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이 '2024년도 경제 전망'을 주제로 연단에 섰다. 추광호 동문은 21세기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세상을 빠르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의 규제 정책은 산업계의 변화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한다. 추본부장은 국가의 규제 때문에 기업이 성장을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이 우리나라에 만연하다고 진단하면서 미국과 EU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미국이 경제 구조를 시장 자율에 맡겼기 때문에 규제 중심으로 정책을 편 EU보다 더 크게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미국 56.7%, EU 11.5%, 2012~2022년) 또한 미국의 실업급여 중심 코로나 재정 정책을 근거로 우리 노동시장에 유연화가 필요함을 설파했다. 추본부장은 노동시장 유연화가 근로자로 하여금 자기 능력을 더 발휘하는 쪽에 취직하도록 유도하고, 기업의 새로운 시도를 장려하며, 국가 전체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다른 한편으로 정부 정책이 기존에 기득권을 누렸던 사람들의 피해를 보호하는 데 너무 집중돼 있다고 꼬집으며, 정책의 기초가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옮겨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추본부장은 다변하는 경제 상황 아래서 국가 경제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상품경쟁력 강화하고 외부의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는 등 장기적인 역량을 성장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비납부 안내

회비구분		회비	
연회비	회원	5만원	
	임원	회장	100만원
		부회장	30만원
		이사	10만원
평생회비		50만원(만65세 이상 30만원)	

납부계좌 : 농협 301-0252-4434-51 권영걸(서울대미대동창회)

※ 회비납부시 성명·학번·학과를 명시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대총동창회비는 별개이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회비입금내역(10.26-12.27)-가나다순

- 부회장 회비** 광병두(84산미) [24년도] 안필연(80조소)
- 이 사 회비** 김진경(70응미) 신현경(74회화)
- 일 반 회비** 김민호(16조소) 박현주(87서양) 전성규(81회화) 현해리(08동양) [24년도] 전기순(82응미) 김철효(63회화)
- 평 생 회비** 강찬균(57응미) 박한진(57회화) 한은선(89동양) 황승희(69응미)
- 후 원 금** 정옥란(62응미) 10만원 한석란(71조소) 100불
박소영(73회화) 5만원 김은주(17한국어지도자과정) 1만원
- 광고후원금** 디팩 이한호 584,000원
김소선(63조소) 나성숙(71응미) 이민주(76회화) 이강화(81회화) 각 20만원

부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심죽자(49회화) 본인상



심죽자 동문이 지난 12월 10일 향년 94세로 별세했다. 심동문은 1929년 출생하여 1949년 모교 서양화과에 '1호 여학생'으로 입학했다. 1955년 모교를 졸업한 후 화가로서 활발히 작업을 이어왔다. 1973년 국립현대미술관 초대 현역작가 100인전에 참여했으며 제8회 미술인 대상 등을 받았다.

■ 길호관(74응미) 본인상 12월 12일

■ 손대홍(79응미) 모친상 12월 2일

동창회SNS로 소식을 보고 전하세요~

본회는 회원과의 소통을 위하여 네이버밴드·인스타그램 등 SNS계정(명칭/서

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 운영하고 있으며 공식 유튜브 채널 '서울대학교미술대학동창회 SNU Art Alumni'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밴드에는 전시, 행사, 애경사를 직접 알릴 수 있습니다. 밴드 가입 시 회원인증을 위해 ID를 실명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ID예:김홍도(98동양)

휴대폰으로 소식지를 보세요~

서울대미대동창회 E-NEWS는 매월 말일 발행하여 동문 및 관련단체 등 3000여명에게 메일을 통해 전달하며, 인스타그램·네이버밴드 등 SNS에서도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문자(010-5235-1946)나 메일(snuarta@naver.com)로 동문들의 전시 및 행사·인사·수상·개업·결혼·부고 등 동정을 보내주시면 소식지에 게재해 드립니다. 또한 홈페이지와 소식지에 비즈코너를 마련해 동문들의 사업체를 소개해 선후배간 도움을 나누고자 하오니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동문은 사업체 소개기사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축하기·근조기 배송안내

회원 및 회원가족의 결혼 상 등 경조사시 축하기나 근조기를 보내드리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축하기와 근조기는 모든 회원께 무상 제공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나 아직은 동창회 재원부족으로 당사자가 본인인 경우 외에는 요청하시는 회원께 배송비(지정업체 위탁)를 받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신청전화: 02-555-1946

광고협찬안내

서울미대동창회 E-NEWS 광고를 통해 기업·단체·개인의 홍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찬해 주시는 광고료는 후원금으로 처리되며 이뉴스 발간 및 본회 사업을 위해 쓰이게 됩니다

- 회 지 명 : 서울대미대동창회 E-NEWS
- 발행방식 : 이메일 발송, SNS업로드(인스타그램, 밴드)
- 광고마감 : 매월 20일
- 발 행 일 : 매월 말일
- 판 형 : A3(국배배판) 297x420mm
- 연락처 및 이메일 : 02-555-1946, snuarta@naver.com

규격	광고료		
	1회	6회	12회
1/6면	10만원	50만원	100만원
1/3면	20만원	100만원	200만원
1/2면	30만원	150만원	300만원
전 면	50만원	250만원	500만원

후원광고

국내최초 품격 작품포장
D-Pack의 시대가 열렸다
'10kg이상 중량작품 포장 가능'
'박스는 100호까지 자유로이 맞춤제작'

작품의 운송과 보관을 위한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박스 D-Pack이 출시됐습니다. 2019 글로벌아트페어링가폴(대회장 권영걸)의 국내외 전체 작품운송을 책임졌던 이한호 대청해운 대표가 삼십여년의 대형 글로벌 운송경험을 바탕으로 작품포장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새롭게 개발한 제품입니다. D-Pack은 플라스틱 소재의 포장박스로, 그동안 사용되어왔던 종이박스를 대체할 품격과 안전성, 내구성을 갖추었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가격과 맞춤제작 서비스를 제공하며 100호 이상의 대형작품도 가능합니다. 자체제작한 포장지(발포지)는 별도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문의) 02-783-7080 (문자주문) 010-8474-7080

호	BOX 가격표(cm/원)							미술품 포장지(발포지) 가격표	
	가로	세로						사이즈	가격
		F(인물)	가격	P(풍경)	가격	M(해경)	가격		
1	22.5	15.8	5,000	14.0	4,500	12.0	4,000	60*80	5,500
2	25.8	17.9	6,000	16.0	5,500	14.0	5,000		
3	27.3	22.0	7,000	10.0	6,500	16.0	6,000		
4	33.3	24.2	8,000	21.2	7,500	19.0	7,000	100*80	6,600
6	40.9	31.8	9,000	27.3	8,500	24.2	8,000		
8	45.5	37.9	10,000	33.4	9,000	27.3	8,500		
10	53.0	45.5	12,000	40.9	11,000	33.4	10,000	100*130	8,800
12	60.6	50.0	14,000	145.5	13,000	40.9	12,000		
15	65.1	53.0	16,000	50.0	15,000	45.5	14,000		
20	72.7	60.6	18,000	53.0	17,000	50.0	16,000	150*125	13,200
25	80.3	65.1	20,000	60.6	19,000	53.0	18,000		
30	90.9	72.7	25,000	65.1	23,000	60.6	20,000		
40	100.0	80.3	30,000	72.7	28,000	65.1	25,000	140*170	14,300
50	116.7	91.0	35,000	80.3	33,000	72.7	30,000		
60	140.0	97.0	40,000	89.4	38,000	80.3	35,000		
80	145.5	112.1	45,000	97.0	40,000	89.4	38,000	150*190	16,500
100	162.1	130.3	50,000	112.1	45,000	97.0	40,000		

동문탐방

김승희(65응미)

겨울비가 내리는 12월 오후, 김승희 동문이 운영하는 종로구 갤러리카페 소연을 찾았다.

교수·작가·경영자로서 성공적 삶을 살아온 비결과 과정은?



미국 유학 후 국민대 생활 미술학과 금속공예 전공교수로 국제적인 교류를 활발하게 하며 금속실기의 심도 있는 수업을 이끌었다. 한국 현대공예 1세대 작가로서 한국 금속공예사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새로운 기법들은 최순우의 저서 '민예'에 나오는 민속정신과 그런 작품들을

현대적으로 표현하고 싶은 욕망에서 태어났다. 금속공예 기초를 미국 유학시 배웠기에 귀국 후 한국이 대단한 금속공예 강국이라는 것에 확신을 갖고, 2008년 호주 금속공예단체 'Jam Factory'에서 우리 공예 역사를 담은 '한국 금속공예 과거와 현재'를 주제로 특강을 하였다. 그 결과 약 4년 후 2012년 호주 시드니 파워 하우스 뮤지엄에서 한국금속공예 고대에서 현대까지의 대규모 전시가 이루어진 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릇, 장신구, 금속으로 그린 회화, 입체오브제 제작 등 다양한 작업과 더불어, 틈틈이 쓴 소논문내용을 수업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설명하면서, 공예가 우리 민족 미술의 원류임을 한시도 잊지 말 것을 강조 하였다. 작은 꿈이 큰 뜻을 이룬다는 소망으로 미력하나마 공예 대중화 운동의 텃밭을 가꾸는데 진력해왔다. 크레프트하우스와 소연은 그 꿈을 향한 멀지만 그러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세워 둔 이정표였다.



하염없는 생각 1987, 적동-황동, 백동, 300x60x80cm

기억에 남는 전시나 행사는?

다양한 전시와 행사 중 87년 전시가 나의 작품세계를 확장시키고 금속공예의 선구자란 칭호를 받게 한 전환적 전시로 본다. 초기 생활용기인 은그릇으로 시작한 나의 공예의 삶이 87년 '하염없는 생각' 전시부터 오브제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은이란 재료가 색이 변하는 점과 용기로 한정된 은그릇에서 벗어나고 싶은 나의 욕망과 호기심이 자아낸 변환의 전시였다. 이때 전시한 오브제와 유사한 형태를 브로치 소품으로 만들어 함께 전시했는데 이 오브제 브로치가 폭발적 인기를 끌었다. 이후 버려지는 보석을 장신구와 결합한 작품을 만들었다. 기존의 보석 장신구의 가치관에서 장신구의 신세계를 개척하고자 했다.

한국 금속공예의 역사와 K-craft의 전망은?

신라시대 금관에서 보여지 듯 한국은 금속공예의 나라라고 할 수 있다.



전통에 뿌리를 두고 현대화 한다면 K-Craft의 전망은 무한하다고 설명한다. 한국의 현대금속공예 교육은 1970년대 초반 학과목으로 채택하면서 시작되었고 50년이 흐른 현재 한국 금속공예는 빠른 속도로 발전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1980년대 초빙강사로 온 미국인 Jack Da Silver는 한국의 은수저공방을 둘러보면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금속수저를 쓰는 나라라고 한국 금속공예에 대해 극찬하였다. 용광로를 비롯한 망치와 그 외 도구들이 있었기에 적어도 1세기경부터 단조기법(forging)으로 금속 수저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밥 그릇, 국 그릇 등 생활용품과 장식품도 금속제품이 많았다. 한국 고유의 기법을 계승 발전하여 한국 금속공예가들의 세계화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때마침 BTS를 비롯한 K-Culture가 세계인들의 공감을 받고 있어서 K-Crafts도 곧 최고라고 감탄 받는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은?

올해 12월 26일 부터 내년(2024) 3월 17일까지 제주공예박물관에서 십장생 설치작품(십장생, 꽃자왈을 거닐다)전이 열리고 있다. 십장생은 우리 전통문양에서 가장 많이 쓰여온 열 가지 장생물로서 불로장생이란 염원을 담은 길상문이다. 이 문양을 현대적 설치 작업으로 재구성한 작품이다. 최근에는 우리나라 장신구 중에 손가락에 끼는 쌍가락지 연구에 십수년간 매진하고 있기도 하다. 쌍가락지를 끼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가문의 영광을 물려주기 위해 두꺼운 가락지를 낀 것이 우리 전통이다. 고종 시절 무역협정 이후 일본에서 다이아 반지가 처음 들어왔고 쌍가락지중 하나로 되어 있어 반쪽이란 의미로, 반지라 명명하기 시작한 것이다. 본 가락지 디자인은 공예·디자인진흥원에서 우수공예 수상자로 선정된 후 네이버 쇼핑에 올렸는데 최근 많은 주문이 들어와 음양을 의미하는 쌍가락지가 대중적으로도 널리 퍼져나가는데 보람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지금까지 연구한 자료를 후진들에게 남기고, 공예인생을 정리, 마무리 할 때라고 생각한다.



브로치 3점 2022, 정은, 포세린 채색, 강철핀, 6x8cm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한국은 공예의 나라다. 중국은 도자기 일본은 옷칠의 나라이고 한국은 공예 중 특히 금속공예의 나라이다. 한 중, 일 중 유일하게 금속 수저가 대중화된 나라이므로 금속활자가 가능했던 것이라 추정한다. 이러한 전통과 역사를 연구하는 것이 살 길이다. 요즘 너무 트렌디해지는 젊은세대에게 하고 싶은 말이다.

■ 김승희 동문은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금속공예학과 명예교수이며 '갤러리카페소연'과 '소연 컬렉션'의 대표이다.



김승희

그릇에 비디오 아트를 담다

그릇에 비디오 아트를 담다

철 · 모니터 · DVD Player, 2008

160x180x50cm, 150x170x40cm, 140x160x40cm

백남준 추모 특별전 2008,2009,2010- 한국미술관 주관

작품문의: 갤러리 작은자연 · 소연

82-2-379-5950

sowyen99@naver.com

대한민국미술인의날 본상 수상 전기순(82응미)

전기순 동문이 지난 12월 5일 한국방송회관 코바코홀에서 열린 제17회 대한민국 미술인의 날 행사 시상식에서 본상을 받았다. 이날 행사는 한국미술 협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후원을 받았다. 매년 12월 5일 열리는 '미술인의 날'은 기업 및 문화계와 지속적인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젊은 작가들의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는 행사이다. 이 행사에서 한국 미술의 위상을 높인 이들에게 본상(대상), 공로상, 원로작가상, 미술문화공로상, 정예작가상 등 5개 부문 상이 수여된다. 이날 본상 7명을 포함,



32명이 상을 받았다. 전동문은 "미술인 본상을 받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음에도 상을 준 점은 향후 미술계의 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하라는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전동문은 모교 응용미술과를 졸업한 후 국민대 대학원에서 시각디자인 석사 학위를, 홍익대 대학원 문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강원대학교 멀티디자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대한민국미술인의날 원로작가상 수상 강명순(59미학)

강명순 동문이 제17회 대한민국 미술인의 날 행사 시상식에서 원로작가상을 받았다. 원로작가상은 대한민국 미술인의 날이 첫발을 내디딘 2007년 12월 5일에 미술계에 공로를 세운 원로작가들의 노고를 기리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올해는 강동문을 포함해서 4명의 작가가 원로작가상을 받았다. 한편, 강동문은 서울 출생으로 모교 미학과 학사를 졸업하고 프랑스 아카데미 그랑쇼미에르에서 수학했다. 누드를 소재로 한 성화로 활발하게 작품 활동



을 해온 강동문은 일찍이 예수 연작으로 이름을 알렸다. 그는 롯데화랑, 현대미술관, 일본 긴자 나카야마화랑, 밀알미술관 등에서 16여회의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NUDE DRAWING CROQUIS'(2005), '세월이 흐르는 소리'(1995) 등의 책을 출간했다. 이중 전자는 1975년부터 2000년대 초까지 강동문이 그린 누드크로키를 모은 책이다. 제24회 대한민국기독교 미술상을 수상했으며 충신예술대학 강사로 일했다.

강찬균기념관 추진 강찬균(57응미)

서울대 상징물 '샤를 만든 강찬균 동문에 대한 기념사업 운동이 인천에서 일어나고 있다. 지난 11월 20일에는 '강찬균 작가 기념관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구성, 발족식을 열었다. 추진위에는 이현준 인천영화국제고등학교 교장을 비롯해 이병화 인천문화발전연구원 이사장, 정영호 인고미술동문회 회장 등 10명 이상이 참여했다. 추진위는 강동문의 작품들을 전시할 공간으로 기념관 조성 필요성에 의견을 모으고 적절한 장소와 사업자를 구상하는 중이라고 사업 현황을 밝혔다. 최근 강동문이 추진위 관계자를 통해 인천에 작품을 기



탁할 의향을 밝히며 기념관 설립은 추진력을 얻고 있다. 한편 강동문은 1938년 인천 출생으로 모교 응용미술과를 졸업한 후 이탈리아 피렌체 마지스테로 미술학교와 가라라 대리석 공예학교에서 교육자 연수를 받았다. 그는 한국의 1세대 금속 공예가로서 종래 재래식 단순 공예 개념의 차원을 벗어나 다채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현대공예 개념을 작품에 도입했다. 모교 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모교 명예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포항시 '최병상작가 작품기증식' 개최 최병상(57조소)

최병상 동문이 본인의 대표작품 18점을 포항시립미술관에 기증한 것을 기념하여 지난 12월 5일 포항시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최병상 작가 작품 기증식'이 열렸다. 이번 기증은 지난 5월에 열린 포항시립미술관 스틸아트 작가 조망전 '기도하는 마음으로, 최병상'을 계기로 이뤄졌다. 최동문은 이 전시 개최 중 기증 의사를 밝혔다. 기증작품 18점에는 출판작 중 본인의 초기작인 1960년대 철 용접 조각부터 2000년대 변환기의 홀로그램, EL(전기발광, Electro Luminescent) 등 테크놀로지를 도입한 금속조각까지 작업 세계 전반을 이해



할 수 있는 대표작품이 포함되었다. 최동문은 한국 조각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용접 조각의 산증인이다. 1957년 모교에 입학해 2학년 부터 철 용접 조각을 선보였으며, 1959년 제8회 국전에서 철판 조각을 모아 제작한 '대지'로 특선을 수상해 조각계의 주목을 받았다. 작품 활동 외에도 교육자로서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후학양성에 힘써왔다.

'단순한 그림 단순한 사람 장욱진' 출간 정영목(교원)

정영목 모교 명예교수가 '단순한 그림 단순한 사람 장욱진'을 지난 11월 30일 소요서가에서 출간했다. 이 책은 정교수가 미술사가이자 평론가로서 그간 발표해 온 화가 장욱진에 관한 글을 모아 그림과 함께 엮어서 만들어졌다. 장욱진은 이중섭, 김환기, 박수근, 유영국과 함께 한국근현대미술을 대표하는 화가이다. 그러나 그동안 장욱진에 관한 평론은 그의 기이한 삶과 불교적이고 도가적인 사상을 중심으로 한 작가론에 치우쳤다. 이에 정교수는 "화가는 그림



으로 말하고 그림은 형식으로 표현된다"는 견지에서 장욱진을 한국적 모더니즘으로 규정하며, 한국근현대미술사 기술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 한편 정교수는 모교 서양화과 명예교수로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 미술사학과, 일리노이대 어바나 샴페인에서 미술사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서양미술사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 미술관장 및 조형연구소장, 서양미술학회 회장, 한국미술이론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2023 파워 100' 71위 선정 양혜규(90조소)

양혜규 동문이 영국의 저명한 현대미술 전문지 '아트리뷰 ArtReview'가 지난 12월 1일 발표한 '2023 파워 100'에 71위로 선정되었다. 지난 2002년부터 매년 진행 중인 '파워 100'은 전 세계 문화예술계 인물들, 그들의 활동과 영향력 등에 대한 포괄적이고도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100인을 선정한다. 아트리뷰는 "프랑크푸르트 국립미술학교 슈테델슐레의 교수로 재직 중인 양혜규는 동시에 작가로서의 활발한 활동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 밖에도 미국의 전설적인 사진가 낸 골딘이 1위를, 독일의 현대미술가 히토 슈타이얼이 2위를 차지하는 등 예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미술가들의 활약이 돋보인다. 한편, 양동문은 모교 조소과와 독일 프랑크푸르트 조형예술아카데미를 졸업하였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기억을 녹여낸 조각, 평면, 설치 등 다양한 작품 세계를 구축하고, 현재는 독일과 서울을 오가며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파리 개인전 심문섭(61주소)

심문섭 동문의 개인전이 파리 기반 갤러리인 페로탕 파리에서 지난 11월 25에서 오는 2024년 1월 13일까지 개최된다. 이는 페로탕과 함께하는 두 번째 전시로, 작년 12월 페로탕 홍콩에서 열린 '시간의 풍경'에 이어 바다와 자연을 담은 그의 회화 연작을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이번 개인전에서는 회화와 조각 작품을 포함, 2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작가의 고향인 경상남도 통영의 앞 바다에서 영감을 받아 시작된 그의 회화 시리즈는 캔버스 위에 반복적인 제스처를 통해 남겨지는 붓질과 다양한 스펙트럼의 색조가 인상적이다. 한편



1970년에는 전위 미술을 표방한 실험적이고 진취적인 한국아방가르드협회(A.G.)에 참여하는 등 선후배 작가, 미술계 인사와 활발히 교류하기도 했다.

다용도 음식트레이 디자인 이순종(70응미)

이순종 동문의 '지속 가능한 생활을 위한 디자인-다용도 음식 트레이 디자인' 특별초대전이 인천시 중구 신포로 인천개항박물관 고송문화재단 기획전시실에서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3일까지 개최됐다. 이동문은 무한한 상상력과 창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평범한 일상과 합일하는 디자인 세계를 추구한다. 새로운 변화와 예술미에 대한 탐구는 음식을 담은 트레이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그는 모교 응용미술과 학사와 동 대학원 미술학 석사, 일리노이공대 대



학원 디자인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헬싱키예술타 디자인대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이동문은 모교 학장을 지냈으며 현재 디자인학부 명예교수이자 한국미래디자인연구원 대표이다. 한편 이번 특별초대전 개막에 앞서 지난 11월 24일 인천문화재단 칠통마당 모임방 1에선 '사회혁신을 위한 디자인-다용도 음식 트레이 디자인'

이란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섬 신근식(88동양)

신근식 동문의 개인전 '섬'이 인천 중구 개항장에 있는 도든아트하우스 1층 갤러리에서 지난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되었다. 신동문은 즐기차게 섬을 그려온 화가다. 어린 시절부터 좋아했던 바다와 섬, 갯바위에서 보았던 구름과 노을은 그가 즐겨 그리는 소재다. 그동안 수묵의 농담으로 섬을 그려왔다면 이번 전시에서는 수묵과 함께 환한 색채를 사용하고 있다. 가까운 풍경은 과감한 수묵으로 먼 하늘은 원색에 가까운 강한 색채로 담아냈다. 이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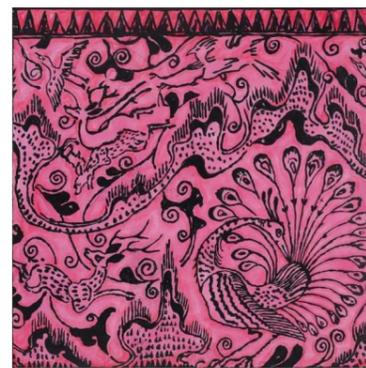


개최하며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전시에서 보여주는 특징은 근경의 한자리에 동물이 등장하는 것이다.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자리에 고양이나 새, 거북이 등을 위치하게 해 현실과 비현실의 조화 또는 부조화를 보여준다. 한편 신동문은 모교를 졸업한 후 한국미술협회와 동상이몽 등 여러 그룹전과 개인전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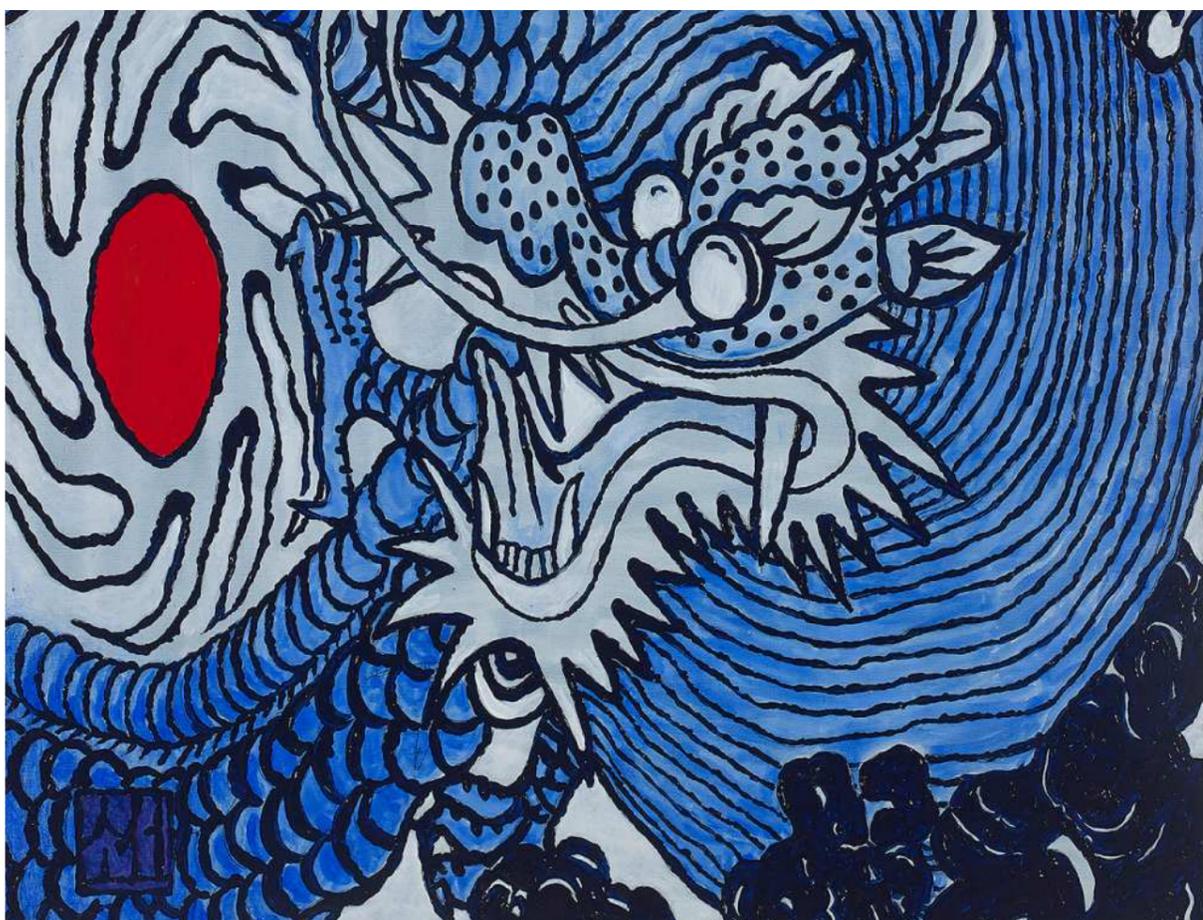
김소선 초대전 김소선(63주소)

김소선 동문 초대전이 오는 1월 19일부터 30일까지 종로구 신문로 갤러리내 일에서 열려 그림 속 독특한 이야기로 아름다운 예술 세계를 선보인다. 민화, 전통화, 식물화, 동물화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는 김동문의 작품들은 독창적이고 따뜻한 감성으로 가득하다. 이번 전시에는 2024년 갑진년 푸른 용의 해를 맞아 그린 용 그림이 전시된다. 용은 왕을 상징하며 우리를 지켜주는 벽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김동문은 설명했다. '인간의 따뜻한 마음과 동양의 우주관, 그리고 천체에 관한 이야기'를 그리는 그는 그림을 통한 소통을



대학교 사회교육원 위촉교수를 역임했다.

모색한다. 장르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상황과 장면에서 마음에 울림이 담긴 대상들을 그려낸다. 김동문은 갤러리내일(2022), 진부령미술관(2018), 영국 런던 한국문화원(2008), 노르웨이 베르겐국립박물관(2008) 등에서 다수의 개인전을 개최하며 우리 민화를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꾸준히 해왔다. 제1회 광주도자엑스포(2000) 홍보작가로 선정된 바 있으며, 가천



김소선 초대전

2024 1.19 - 30

11am - 6pm / 월요일 휴관

갤러리 내일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3(내일신문) B2

후원광고

빛과 시간의 조각 윤혜성(90서양)

윤혜성 동문과 이영인 작가 2인의 전시 '빛과 시간의 조각'이 지난 11월 4일부터 29일까지 인사동 올미아트스페이스에서 열렸다. 윤동문과 이작가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재불 한인 예술가 단체인 소나무 작가협회(Association des Artistes Sonamou)에 속한 작가들이다. 소나무 작가협회는 1991년 프랑스 파리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26명의 한인 미술 작가들이 모여 한국인의 삶과 정서가 긴밀하게 연결된 소나무를 단체 이름으로 정해 결성한 협회이다. 소속



파리 8대학 조형학과를 졸업했다.

작가들은 프랑스 한인 사회에서 예술 활동의 중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 윤동문은 그림자를 주제로 빛과 물체가 만나는 순간을 포착해서 이미지화한 작품 '흔적'을 출품했다. 그림자는 시간의 흐름, 사물의 형태, 빛의 춤을 담아낸 찰나의 산물로 물리적 실체는 갖지 않지만, 시간의 궤적을 남긴다. 한편, 윤동문은 모교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Trans-Lucent 넘나드는 빛 신수진(91서양)

신수진 동문의 개인전 'Trans-Lucent 넘나드는 빛'이 지난 12월 1일부터 30일까지 부산 갤러리순에서 열렸다. 신동문의 작업은 섬세한 차이를 반복해서 드러내 조형적 요소들이 서로 충돌하며 형성하는 공간을 다룬다. 이번 전시에서는 일견 평온하게 보이는 추상적인 화면에서 작용하는 개체 간의 미묘한 변화와 중첩, 섬세한 결이 가진 디테일과 조형적 효과에 관한 신동문의 관심을 보여준다. 전시의 제목인 'Trans-Lucent'는 수없이 겹 층위들이 드러나고 가려지면서, 모호한 듯 은은하게 존재감을 발하는 빛과 같은 색의 효과를 암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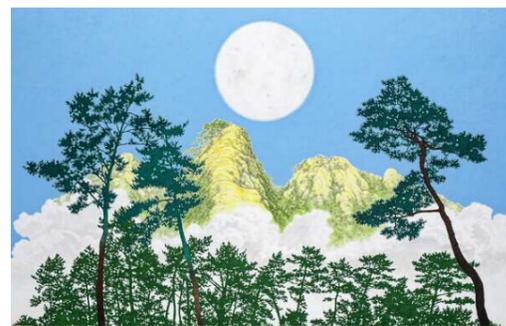


영문미술관 등에서 9여 회의 개인전을 개최했다.

다. 신동문은 씨앗이나 잎새 같은 작은 이미지들의 반복과 집적을 통해 변주되는 추상적인 풍경은 삶에 대한 성찰을 자연적 사물에 이입하여 시선에서 배제된 것을 만들어내는 가능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는 다양하고 가변적인 세상을 대하는 태도,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고 신동문은 밝힌다. 한편 신동문은 모교 서양화과 학사와 동대학원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위스콘신-매디슨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망산수도(望山水圖) 나형민(91동양)

나형민 동문의 개인전 '망산수도(望山水圖)'가 지난 12월 6일부터 12일까지 갤러리 그림손에서 개최됐다. 이상적인 산수풍경은 전통적인 산수화의 지향점이다. '산수를 바라본다(望山水圖)'는 의미는 과거의 선인들이 이상향으로 생각해 온 산수에서 은거하며 유유자적(悠悠自適)하듯이 지평 너머의 산수 자연을 보고 향유하는 와유(臥遊)의 의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표현한 것이다. 더불어 이번 전시에서 인간의 시선을 통해서 바라본 산수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한국화전공 교수로 재직 중이다.

(K-AI Painter)의 시선을 통해 생성한 산수도도 같이 선보이면서 시대의 변천에 따른 산수화에 대한 시각을 고찰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편, 나동문은 모교 동양화과와 동대학원 석박사 과정을 졸업하였으며 현재 경희대학교 미술대학

청연淸緣 이강화(81회화)

이강화 동문의 45번째 개인전 '청연淸緣'이 지난 12월 15일부터 오는 1월 31일까지 압구정동 갤러리PaL에서 개최된다. 그는 강화도 작업실 앞에 펼쳐진 바다와 하늘, 들풀과 야생화 등 소박한 생명과 그것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을 캔버스에 담는 구상화가이다. 생명의 경이로움을 오래된 고가구 서랍과 문짝, 버려진 삽과 같은 기억 속 사물에 담아 그 의미를 더하기도 하고, 다양한 재료로 밀칠 된 배경 위에 리듬감을 얹어 자연에 순응하는 작가만의 질서를 표현하기도 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소품에서 500호에 이르는 30여 점의 작품



을 하고 있다. 현재 세종대학교 예체능대학 회화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을 관객에게 선보인다. 그는 "자연에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에서, 혹은 바람에 흔들리는 찰나의 한 장면에서 오래도록 기억에 남아 있는 순간을 화폭에 옮기는 작업이기에 자연과의 공감은 나에게 더없이 '즐거운 놀이'"라고 작가노트에서 밝혔다. 이동문은 모교에서 서양화를 졸업 후 프랑스 파리 국립 8대학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쳤다. 현재까지 45회의 개인전 및 500여 회의 단체전과 프로젝트 전시에 참여하며 활발한 활동을

후원광고



LEE KANG HWA

이강화 초대전

淸緣

2023.12.15 ————— 2024.1.31

TUE - SAT 11:00-18:00 / MON.SUN OFF

갤러리PaL

강남구 논현로 164길 21 우리빌딩 1F, B1
문의: 010 2217 3210

시멘트와 돌 정희우(93동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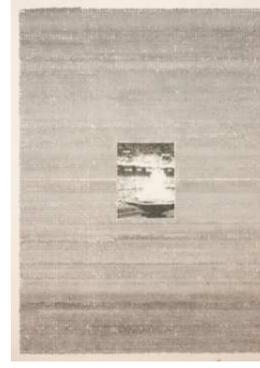
정희우 동문의 개인전이 지난 11월 14일부터 12월 3일까지 양평군 메탈하우스 갤러리에서 개최되었다. 정동문은 시멘트와 바위에 새겨진, 또는 품고 있는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전한다. 그는 도시와 자연, 특히 바위에 대한 시간의 흐름을 기록하고 탐구하는 주제를 다루며, 우리가 보통은 넘기기 쉬운 일상에서의 흔적들을 독특한 시각으로 조명한다. 또한, 시멘트와 바위를 통한 대비를 통해 현대 도시의 빠른 발전과 자연의 느린 흐름 사이의 간극을 효과적으



로 드러낸다. 시멘트와 바위라는 두 다른 소재를 선택함으로써 정동문은 현대 건축과 자연의 속도, 시간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강조하고 있다. 시멘트는 빠르게 형성되고 쌓일 수 있지만, 바위는 천천히 시간을 거쳐 형성되며 그 안에는 오랜 세월의 역사가 담겨 있다. 한편, 정동문은 모교 동양화과 학사, 박사과정을 졸업하였으며, California Institute of the Arts에서 석사과정을 졸업하였다.

붕괴 임장순(96동양)

임장순 동문의 개인전 '붕괴'가 지난 11월 7일부터 12월 1일까지 수원 교동해움미술관에서 개최되었다. 임동문은 작품 연구를 통해 전통 회화 매체가 현대 사회와 문화의 다양한 요소들을 참조(referencing) 또는 지시(indexing) 할 수 있는 작품 창작의 방법론을 탐색하고 있다. 그의 작품에서는 사회, 문화와 관련되는 특정 이미지나 텍스트가 회화 작품의 화면에 전통 회화창작의 기법을 통해 재현됨으로써 관객은 작품 창작에 임한 작가, 그리고 특정 사회/문화



에 관한 담론을 회화작품을 통해 반추하게 된다. 그는 이번 전시를 위해 '붕괴'라는 키워드로 1990년대에 있었던 다양한 사건들을 기사화했던 신문의 페이지를 수묵화의 화면에 재현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한편, 임동문은 모교 동양화과 학부와 석사과정을 졸업한 후, 미국 School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Painting and Drawing 석사과정을 졸업하였으며, 모교 동양화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조각의 조건 신건우(97조소)

신건우 동문의 개인전 '조각의 조건'이 지난 12월 3일부터 23일까지 김세중미술관에서 열렸다. 호반문화재단 주최로 열리는 이번 개인전에는 국내에 처음 선보이는 작품과 신작을 포함한 조각 및 평면작업 총 18점이 전시되었다. 신동문은 그동안 다양한 매체와 방식으로 조각적 실험을 구현해 왔으며 특히, 지속적으로 실험해 온 부조 작업이 미술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그의 부조 작품은 조각과 평면의 경계 또는 그 중간의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고찰하는 방식과 태도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이는 종교나



신화에 등장하는 상징, 기호, 반복적 서사를 차용하고 자신 주변 요소와 결합하여 하나의 기념비적 집합체로 재탄생시키는 최적의 구현 방식이다. 이번 전시는 신동문이 주목해 온 조형적 조건에 관한 실험을 총망라하여 그의 관조와 질문, 조형적 사고와 시도, 작품을 위한 선택과 결정 등 일련의 과정과 고민을 작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이다. 한편, 신동문은 모교 조소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한 후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슬레이드예술학교 대학원을 졸업했다.

모든 새들의 둥지 허산(99조소)

허산 동문의 개인전 '모든 새들의 둥지'가 지난 12월 8일부터 오는 1월 7일까지 가나아트 보광에서 열린다. 그동안 건축 공간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작업을 통해 익숙하면서도 낯선 상황을 연출했던 허동문은 최근에 기후위기에 경각심을 느끼면서 환경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작업을 새롭게 전개하고 있다. 그는 가속화되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 대두되는 기후위기는 환경을 아끼는 문제를 뛰어넘어 국가 간의 힘겨루기와 경제적인 요인까지 포괄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2023년에 제작한 '세상의 모든 새들을 위한 둥지'에서 작가는 동시



대인들을 새,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를 둥지로 표현하여 현시대에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행동해야 함을 강조하고 기후위기가 전 세계에서 주목해야 할 문제임을 역설했다. 이번 전시에서 허동문은 보는 이가 실질적으로 기후위기를 체감하길 바랐다. 이로써 그는 앞으로 전개될 '새로운 시대'에 대한 해답을 찾고 인식의 변화를 촉구하고자 한다. 한편 허동문은 모교 조소과와 런던대학교 대학원 Slade School of Fine Art를 졸업했다.

이야기 발생 시점 임동승(99서양)

임동승 동문 외 2인의 단체전이 아트스페이스3에서 지난 11월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 개최되었다. 이번 전시는 서로 다른 지점에서 이미지를 발생시키는 회화 작가 박노완, 안지산, 임동승이 참여하는 3인전으로, 이미지 시작 지점의 차이가 만들어 내는 서로 다른 표현과 우리가 이들의 이미지를 만날 때, 이들의 이미지가 서로를 만날 때, 촉발되는 새로운 사유를 쫓고자 하였다. 이 전시 제목에서 사용된 '이야기'는 서사로서의 이야기이기보다는 '대상과 나' 사이의 이야기를 뜻한다. 작가에 의해 제시, 변주되는 조형적 요소들을 마주할



때, 우리의 사고는 자동발생적으로 여러 정보를 조합하여 이해를 시도하는데, 이 순간이 작품과의 내밀한 대화가 시작되는 지점이다. 임동문은 의식과 세계의 다양한 층위에서 발견되는 이미지들을 재구성하여, 일정한 크기와 균일한 간격으로 이루어진 점들을 이용해 작품을 완성한다. 작품을 이루는 점들의 크기는 이미지의 기원에 따라 유기적으로 변화하는데, 이러한 작용을 통해 추상의 경계를 오가기도 한다.

눈 없는 밤 장소연(02서양)

장소연(장파) 동문의 개인전이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유머감각에서 지난 10월 13일부터 11월 11일까지 개최되었다. 장동문의 작업 전반에 걸쳐 '여성의 주체성'은 중요한 키워드다. 그는 남성 중심의 위계적 구조에서 부정적으로 여겨진 '여성적 특성'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긍정성을 부여한다. 또 '여성적인 것'의 탐구에서 시작하지만, 거기에만 머물지 않고 여성의 관점을 보편화하고 '여성'이라는 범주 자체를 교란하는 감각 체계와 그에 걸맞는 회화의 표면, 질감을 고민한다. 아울러 고전 조각상을 모티브로 삼은 여성/형상 시리즈(2017)



이후 미술사 혹은 문화사적 도상을 적극 가져와 그런 작가적 관심을 더 구체화하고 있다. 장동문은 모교 서양화과 및 미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서양화과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인천아트플랫폼 창고갤러리(2020, 인천), 두산갤러리 서울(2018, 서울)등 12번의 개인전을 가졌으며, 탈영역 우정국(2019, 서울), 서울시립미술관(2015, 서울), 두산갤러리(2015, 서울), 소마 미술관(2011, 서울) 등에서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강원(江原)에 쌓이는 시간 김덕호(03디자인)

김덕호 동문의 도예전 '강원(江原)에 쌓이는 시간'이 서울 북촌 예술에서 지난 12월 4일부터 13일까지 열흘간 개최되었다. 2015년 강원도 양구군으로 온 김동문 조선왕조 관요에 400년간 공급된 '양구백토'를 중심으로 도자예술의 역사성을 탐구해 왔다. 김동문은 백토를 연구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양구백자 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는 양구백토를 확보했고 그 결과 성질이 다른 백토를 쌓아 올리는 연리기법을 비롯해 자신만의 표현 양식을 찾아냈다고 한다. 이번



모교에서 도예를 전공했으며 양구백자연구소 연구원으로 활동 중이다.

전시에서는 작은 유닛을 반복적으로 쌓아 만든 곁이 돋보이는 '흔적' 연작 등을 선보인다. 본 연작은 강원도의 역사와 자연의 아름다움, 유구한 시간 속의 기억을 나타낸다. 이외에도 원주 한지, 춘천옥 등 강원지역의 자연원료나 특산품도 함께 연구해 도예에 접목하는 시도도 이어 왔다. 한편, 김동문

GAIA-소화계 신재은(04조소)

신재은 동문의 개인전이 지난 11월 18일부터 12월 10일까지 아트스페이스 보안1에서 개최되었다. 신동문은 전문가들의 자문과 학술 논문을 통해 밀웜 장내에 스티로폼을 분해 소화하는 미생물이 존재하여 스티로폼을 유기물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최근의 과학적 연구 결과를 접하였고 이를 토대로 '스티로폼-밀웜-닭-인간'으로 이어지는 먹이사슬 구조를 설계하고 실행했다. 생명체는 먹이사슬 안에서 에너지를 섭취하여 새로운 물질로 전환시키고 배출하면서 대자연의 거대한 에너지 흐름을 만들어 낸다. 인간 역시 이러한 자연의 일부



하지만 인간은 스스로를 자연과 분리되어 있는 특별한 존재 혹은 자연과 융화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존재라 여기면서 자신이 배출한 부산물 또한 자연 생태계에서 소화될 수 없는 이물질로 치부하곤 한다. 신동문은 본 전시를 통해 먹을 수 없고 먹힐 수 없는 금단의 영역 안과 밖을 넘나들며 우울감이나 죄책감 같은 인간 감정의 근원을 살펴보고 '먹기'라는 생명체의 근본적인 행위로부터 대자연 속 인간 존재의 의의를 질문한다. 한편, 신동문은 모교 조소과 학부와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이지만 인간은 스스로를 자연과 분리되어 있는 특별한 존재 혹은 자연과 융화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존재라 여기면서 자신이 배출한 부산물 또한 자연 생태계에서 소화될 수 없는 이물질로 치부하곤 한다. 신동문은 본 전시를 통해 먹을 수 없고 먹힐 수 없는 금단의 영역 안과 밖을 넘나들며 우울감이나 죄책감 같은 인간 감정의 근원을 살펴보고 '먹기'라는 생명체의 근본적인 행위로부터 대자연 속 인간 존재의 의의를 질문한다. 한편, 신동문은 모교 조소과 학부와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Back to the Origin-줄풍류 조해리(04동양)

조해리 동문의 개인전이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갤러리도스에서 개최되었다. 조동문은 한국 전통음악을 회화로 표현하는 독창적인 작업을 해 오고 있다. 그의 작품은 음악의 시간성과 공간성을 색채와 형태로 재구성하면서, 청각적인 감각과 시각적인 감각을 연결한다. 조동문은 음악의 한 음 한 음을 자세히 관찰하고, 다시점으로 그려진 그림 속에 정간보라는 악보 형식을 차용하여 음악의 구조와 흐름을 보여준다. 이번 개인전에서는 한국 전통음악의 대표적인 곡인 '줄풍류'를 주제로 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줄풍류'는 한국의



출강하며, 한국웃칠협회 이사를 맡고 있다.

다양한 악기와 연주자들이 함께 연주하는 앙상블 음악으로, 조화와 대비, 변화와 유동성을 특징으로 한다. 조동문은 다시점으로 그려진 그림 속에 정간보(井間譜)라는 악보 형식을 차용해서 한국 전통음악의 대표적인 곡 '줄풍류'를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그는 "귀로 듣는 음악을 눈으로도 관찰하고 느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조동문은 제13회 겸재정선미술관 겸재 내일의 작가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현재 서울예술고등학교에

파생 풍경 박재훈(05서양)

박재훈 동문의 개인전 '파생 풍경 Derivative Landscap'이 지난 10월 2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종로구 성곡미술관에서 개최됐다. 박동문은 포인트 클라우드(point cloud)와 사진측량기술(photogrammetry)을 이용해 현실 세계의 사물을 3D 시뮬레이션으로 번역한다. 직접 사물의 3D 데이터를 만들거나, 게임 개발자들이 만들어 놓은 레디메이드(ready-made) 데이터를 수집한 후 그것을 가공하고 분해하고 재조합해 가상의 디지털 공간에 배치한다. 그의 작업에는 인간 대신 각종 사물이 자리하는데, 이 사물들은 인간이 만들어 낸 동시대 욕망



의 총체로서 하이퍼 자본주의(hyper-capitalism) 아래 모든 질서가 종속되고 재편되는 구조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한편 박동문은 서울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로, 모교 서양화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네덜란드 헤이그 왕립예술학교에서 Master Artistic Research 석사 학위를 받았다. 아트스페이스오, 대안공간 루프 등에서 개인전을 열었고 2022년 암스테르담 plein Theater, Bardwolff Projects에 참여했다.

의 총체로서 하이퍼 자본주의(hyper-capitalism) 아래 모든 질서가 종속되고 재편되는 구조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한편 박동문은 서울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로, 모교 서양화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네덜란드 헤이그 왕립예술학교에서 Master Artistic Research 석사 학위를 받았다. 아트스페이스오, 대안공간 루프 등에서 개인전을 열었고 2022년 암스테르담 plein Theater, Bardwolff Projects에 참여했다.

리빙 위드 더 트러블 윤소린(석13서양)

윤소린 동문의 개인전이 지난 11월 17일부터 12월 10일까지 온수공간 2층에서 개최되었다. '층간소음' 문제를 미학적으로 다룬 전시는 작가의 사적인 반응에서 출발해 화를 내거나 냉소적으로 되거나 혹은 행운을 기다리지 않고 문제에 접근하는 미술가의 실험을 다룬다.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집단의 문제임에도 사적인 경험으로 다가오곤 한다. 이런 경험은 지난 3년간 팬데믹의 공포로 탈진한 개인이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느끼는 고립감을 강화했다. 더욱이 마주할 수 없거나 마주하고 싶지 않은, 보이지 않는



작아카데미 시각예술분야에 선정된 작가이다.

상대를 향한 선부른 예단과 혐오의 감정은 상황에 극도로 예민해지거나 철저히 무감각해지게 했다. 윤동문은 해결 불가능하고 떠날 수도 없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무력감에서 출발하지만, 자신이 거주하는 것에 관한 행위성을 부여한다. 난처한 상황에 포획당하지 않고 '트러블'과 함께 사는 방법을 고안하기 위해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낭만적으로 상상해 본다. 한편, 윤동문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시각예술분야에 선정된 작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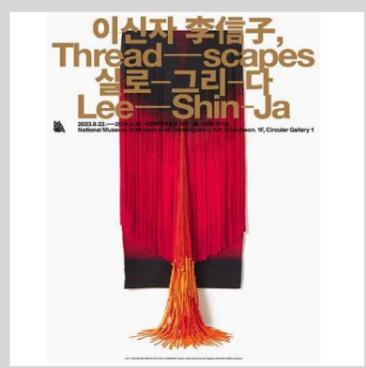
바흐티노프 마스크 이진영(석21졸조소) 외 1인

이진영 동문과 정지현 작가의 2인전이 지난 11월 7일부터 26일까지 부연 그리고 응노에서 개최되었다. 전시 '바흐티노프 마스크'는, 지금의 시점에서, 무언가가 가능해지는 가운데 한편으로 불가능하게 되어버린 영역에 주목한다. 몇 개의 좁은 틈뿐이지만 촬영하고자 하는 천체의 모습을 더 선명히 하는 역설적인 장치가 바흐티노프 마스크(bahtinov mask)다. 작품으로 현상의 단면을 관찰하게 하는, 당연하게 여겼던 현상에 틈을 내어 현실의 해상도를 높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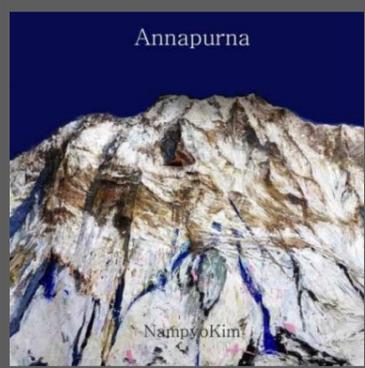
작가들의 작품은 바흐티노프 마스크의 역할과 등치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변적이고 테두리 지을 수 없는 '천체'의 속성과 '가능성'의 성질을 유비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이들 간의 연결은 끈끈해진다. '가능성' 자체는 입장이 없다. 그것에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과 방향은 천체를 관측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달렸다는 사실을 바흐티노프 마스크와 작가들의 작품은 말한다.

1월의 전시



이신자, 실로 그리다

이신자(50응미)
9.22-2024.2.18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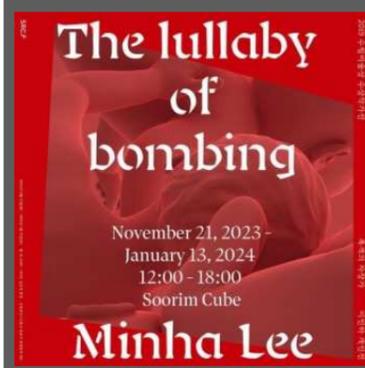
Annapurna

김남표(91서양)
10.18-2024.1.18
서울시 산악문화체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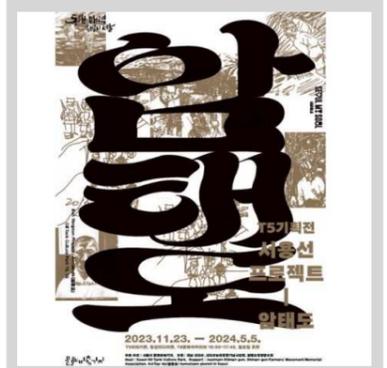
또 하나의 몸

김세일(78조소)
11.17-2024.1.14
김종영미술관 신관 사미루



폭격의 자장가

이민하(98동양)
11.21-2024.1.13
수림큐브



암태도

서용선(75회화)
11.23-2024.5.5
문화비축기지 T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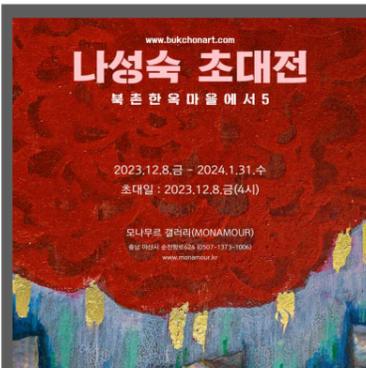
마주한 세계: 풍경의 안팎

이만나(89서양) 외
11.24-2024.2.4
금호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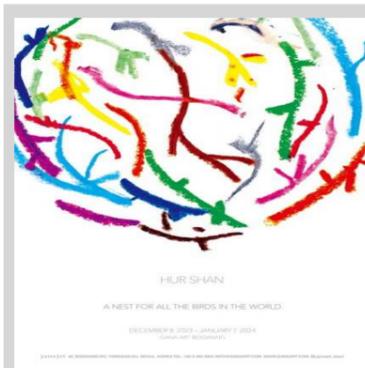
시간의 풍경

심문섭(61조소)
11.25-2024.1.13
페로탕 파리



북촌한옥마을에서5

나성숙(71응미)
12.8-2024.1.31
아산 모나무르 갤러리



모든 새들의 둥지

허산(99조소)
12.8-2024.1.7
가나아트보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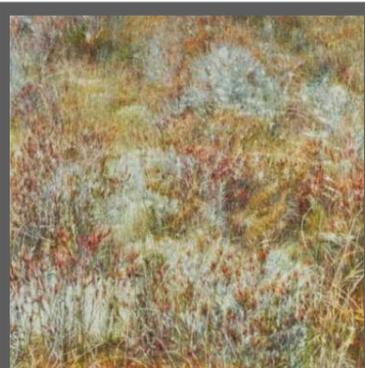
섞이는 모양

이겨레(11졸서양)
12.13-2024.1.7
이촌화랑



획(劃)

임충섭(60회화)
12.14-2024.1.21
갤러리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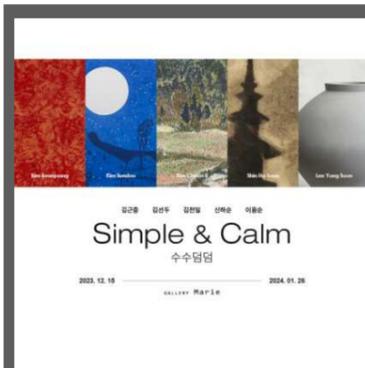
BLOW-UP

이광호(87서양)
12.14-2024.1.28
국제갤러리



괴산의 그림쟁이

황창배(66회화)
12.15-2024.2.28
쉐마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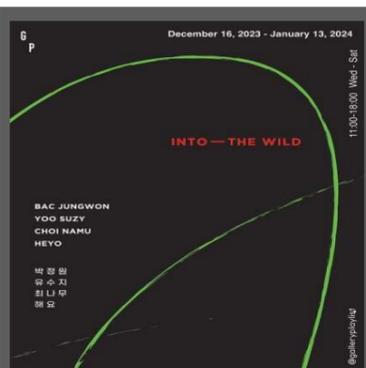
수수덤덤

김천일(71회화) 외 4인
12.15-2024.1.26
갤러리 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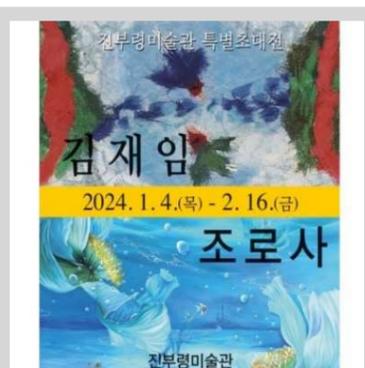
청연

이강화(81회화)
12.15-2024.1.31
갤러리 P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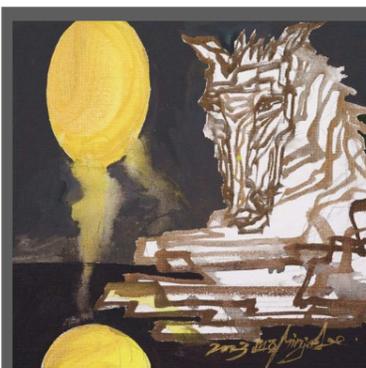
Into The Wild

최나무(97서양) 외 3인
12.16-2024.1.13
갤러리 플레이리스트



조로사

김재임(63회화)
2024.1.4-2.16
진부령미술관



Resonance of the Void II

이민주(76회화)
2024.1.5-1.17
갤러리 내일



신성한 숨결의 얼굴

서길현(91조소)
2024.1.18-1.30
아트스페이스퀼리아



김소선 초대개인전

김소선(67조소)
2024.1.19-1.30
갤러리 내일